

2019년 9월 5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업통상과 과 장 김경미(044-201-2051), 사무관 이인애(2054) / 제공일: 9월 5일(총 1매)

적령치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개도국 지위 관련 정부 입장은 결정된 바 없으며, 신중한 접근 필요 [서울경제·한국일보 9.5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]

- 개도국 지위 관련 정부 입장은 결정된 바 없으며, 농식품부는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
- 서울경제 <韓 WTO 개도국 지위 “실익 없다” 포기 가닥>, 한국일보 <정부, WTO 지위 포기 가닥> 등 제하의 기사 일부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

주요 언론 보도내용

-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향으로 가닥
 - 개도국 지위 포기에 부정적이던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양보 의사를 보이면서 개도국 지위 포기 가능성이 커졌다



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

- 산업부 설명자료(‘19.9.4)와 같이 개도국 지위 관련 정부 입장은 결정된 바 없으며, 농식품부는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